

N수생 대입 문 좁아진다… 예비 고3도 대학별 계산법 복잡

내년 '학생부교과전형' 분석

주요 14개 대학 중 12곳, 졸업생 제한 졸업생, 건국대·동국대만 지원 가능

내년부터 내신 5등급제 첫 적용
최저학력 기준 따라 경쟁률 변동

내년 대입에서 주요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졸업생 지원 제한이 확대된다.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줄어드는 만큼 고3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내신 5등급제가 처음 적용되는 입시인 데다 수능최저학력기준도 달라져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전형별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가 주요 14개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을 분석한 결과, 2028학년도에 졸업생 지원을 제한하는 대학은 12개교(13개 전형)로 집계됐다. 2027학년도에는 3개교·3개 전형이었지만 1년 새 대학은 9곳 늘었다. 학생부교과전형을 운영하지 않는 서울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1월 19일) 전 마지막 모의고사인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0일 인천 인천 부평구 상정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뉴스시스

기존 고려대·서강대·연세대(서울)에 더해 경희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등이 지원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은 건국대(서울)와 동국대(서울) 두 곳만 남는다. 졸업생 지원 풀이 줄면서 재학생은 졸업생과 경쟁하는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내신 평가 체계 개편 등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지원

가능성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내신 5등급제가 처음 적용된다. 기존 9등급제에서는 상위 4%까지 1등급이었지만, 5등급제에서는 상위 10%까지 1등급을 받는다. 1~2등급 누적 비율도 기존 11%에서 34%로 넓어진다. 이투스는 "같은 등급에 포함되는 학생이 많아지는 만큼 이전 입시의 내신 합격선을 새 체제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

다"며 대학별 내신 산출 방식과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확인해 자기 성적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별 성적 반영 방식을 살펴보면, 홍익대는 교과 성적 95%와 출결 5%를, 중앙대와 서강대는 교과 90%와 출결 10%를 반영한다. 고려대는 교과 80%에 서류 20%, 한국외대와 숙명여대는 교과 70%에 서류 30%를 적용한다. 서울시립대 지역균형선발전형과 한양대(서울) 추천형은 교과 60%, 서류 40%로 평가한다. 동국대(서울) 학교장추천인재전형은 공동과목을 제외하고 성취도와 석차 등급이 함께 기재된 상위 10개 과목을 평가에 활용한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달라진다. 건국대 KU지역균형은 내년부터 수능 최저(국어·수학·영어·탐구 중 3개 영역 등급 합 8 이내)를 적용한다. 반면, 한양대 추천형은 기존 3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에서 3개 영역 모두 3등급 이내로 변경한다. 고려대 학교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를 전면 폐지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실질 경쟁률도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을 비교하면 서울시립대 지역균형선발전형은 11.27대 1에서 7.96대 1로, 한양대 추천형은 10.22대 1에서 7.21대 1로 낮아졌다. 서강대 지역균형전형도 10.85대 1에서 1.57대 1로 하락했다. 최초 경쟁률이 높더라도 실제 경쟁 구도는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원 대학을 선택할 때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졸업생 지원 제한은 재학생의 경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지원 유불리는 대학별 반영 방식과 수능최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학생부교과전형 지원 여부를 현재 내신 성적만으로 일괄 결정하기보다 대학별 교과 반영 방식과 서류평가 비중,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남은 학기 동안 성적을 보완할 과목을 점검하고,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서울 공립 중등교사 선발, 1년 새 30% 줄어

공립 694명 선발에 5207명 지원
선발 306명, 지원자 293명 줄어

서울 공립 중등교사 선발 규모가 1년 새 30% 넘게 줄면서 경쟁률은 반등했지만, 지원자는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 규모가 오르내리는 동안 응시자는 줄곧 감소한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 공립 중등 신규 채용은 2030학년도까지 3300~3700명으로 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 '2027학년도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공립은 694명 선발에 520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7.50대 1을 기록했다. 전년 5.50대 1보다 상승한 수치다. 중등 교과교사 경쟁률도 4.89대 1에서 7.17대 1로 높아졌다. 선발인원이 전년보다 306명(30.6%) 줄고 지원자는 293명(5.3%) 줄었다. 선발 인원이 더 큰 폭으로 줄며 경쟁률이 상승했다.

2027학년도 선발 인원은 694명으로 2023학년도보다 67명 적고, 지원자는 5207명으로 1288명(19.8%) 줄었다. 선발 규모가 늘어나는 동안 이어진 지원자 감소세가 올해도 지속된 것이다.



지난 2월 24일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 행복관에서 열린 신규임용교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신규교사들이 참된 스승이 될 것을 다짐하며 선서를 하고 있다.

사립 위탁 시험에서도 지원자 감소가 나타났다. 공·사립 동시지원 방식 법인(공립 동시지원 포함)의 지원자는 2023학년도 3820명에서 올해 2792명으로 27% 줄었다. 경쟁률은 50.26대 1에서 38.78대 1로 낮아졌다.

올해 서울 중등 교과교사 선발이 900명에서 584명으로 316명(35.1%) 감소한 가운데, 전국적으로도 중등교사 선발 규모가 줄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공고를 취합한 결과, 전국 공립 중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6401명으로 2026학년도 8308명보다 약 23% 감소했다. 교과교사 선발 인원도 7147명에서 4932명으로 약 31% 줄

었다. 서울의 교과교사 선발 감소 폭은 전국보다 컸다.

교육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교원 수급 방향에서 2027학년도 전국 중등 신규 채용 규모를 4700~5100명으로 제시했다. 이후 신규 채용 규모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등 신규 채용 규모는 2028학년도 4200~4600명, 2029학년도 3500~3900명, 2030학년도 3300~37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공립 초·중등 학생수 역시 2030년까지 2025년 422만명보다 약 90만명 감소하고, 이 가운데 중등학생은 약 20만명(11%)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김수정 기자

의대 지원 줄고, 이공계 진학 선호 커져

과기원 중도 탈락자 241명 집계
3년 연속 감소… 지원은 역대 최고

이공계 학생들의 의대 선호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과학기술원 중도 탈락자 수가 최근 6년 새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과기원 수시모집 지원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과학고와 영재학교 지원자 수도 함께 늘면서 이공계 진학 선호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22일 입시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과학기술원(KAIST)·울산과학기술원(UN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의 중도 탈락자는 241명으로 집계됐다.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2025년 과기원 중도 탈락 규모를 조사한 결과, 2020년 277명, 2021년 259명에서 2022년 29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3년 288명, 2024년 250명에 이어 2025년까지 3년 연속 감소했다. 중도 탈락자가 가장 많았던 2022년과

비교하면 18.3% 줄었다.

과기원 지원은 올해 들어 역대 최고를 찍었다. 올해 4개 과기원 수시모집 지원자는 정원 내의 기준 3만3349명으로, 전년 2만4423명보다 8926명(36.5%) 늘었다. 2021년 1만2354명과 비교하면 약 2.7배 수준이다.

이공계 고등학교 선호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영재학교·과학고 지원자는 일반전형 기준 9626명으로, 전년 8674명보다 952명(11.0%) 증가했다. 최근 6년 새 가장 큰 규모다. 영재학교 지원자는 4155명, 과학고 지원자는 5471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328명, 624명 증가했다.

/김수정 기자

전국 교육청, AI 시대 교육 혁신·방향 논의

내일 '혁신미래교육 FORWARD' 교원, 학부모, 교육 전문가 등 참여

AI시대 교육 혁신과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교육청이 한자리에 모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4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교육연수원에서 '2026 혁신미래교육 FORWARD'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마음을 잇는 교육, 미래를 여는 학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경기·경남·대전·부산·세종·울산·인천·전북·제주·충남 등 10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하고 교육부가 후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행사를 기존 혁신미래교육 논의에서 전국 단위 협력으로 확대했다. 지역과 학교별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 현장의 연구·실천 경험을 정책 논의로 연결한다는 취지다. 참여 대상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과 학부모, 학생, 교육 전문가 등이다.

양소희 유난무브먼트&밸리드 대표가 기조 강연을 맡았다. 양 대표는 "좋은 어

른, 좋은 시민다움을 키우는 교육공동체의 길'을 주제로, 공동체의 유대가 약해진 시대에 민주시민교육의 과제를 살펴본다.

학생과 교사의 대담도 이어진다. 수락고 안혜정 교사와 충암고 문성호 학생(청소년 독립 언론 '토키폴' 편집장)이 패널로 참여해 민주주의 교육의 방향을 논의한다.

오후에는 교원·교수·연구자가 참여하는 주제별 세션을 진행한다. 이들은 ▲교육과정 가치 ▲학교의 공간민주주의 ▲교실 내 혐오·차별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교육 등 혁신교육 관련 연구 사례를 발표한다. 아울러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 성장과 변화에 대한 10년 연구'를 바탕으로 AI시대 교육의 역할도 짚어본다.

네트워크 세션도 마련했다. 건국대·성공회대·한국교원대의 혁신교육 전공대학원과 전국혁신미래고등학교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네트워크 등 관련 단체들이 기획했다. 서울 혁신교육의 지난 15년을 돌아보고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혁신미래학교 2.0 정책방향 토론회'도 이어진다.

/김수정 기자

교육부, 사회정서교육 우수사례 첫 공모

오는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접수

내년부터 사회정서교육이 연간 17차시로 확대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 마음 건강을 증진한 우수 사례를 공모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2026년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우수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소속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이며, 접수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다.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예방 교육이다. 자기

관리와 타인과의 소통, 마음 돌봄 등 핵심 요소를 통해 학생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을 함양하고 정서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공모전은 학교 교육과정에 사회정서교육을 적용한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학생의 마음 건강과 공동체 의식 증진, 학업 성취 향상 등을 위해 실제로 운영한 사례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최종 결과는 11월 말 발표하며, 선정 사례는 사례집과 성과 공유회를 통해 학교 현장에 소개한다.

/김수정 기자